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함께 낚는 기쁨 SBS ‘남시동호회’를 소개합니다

글. 김종형 SBS 중계기술팀 오디오감독



남시동호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SBS 개국 이후 초창기에 설립된 동호회입니다. 현재 SBS 남시동호회원은 30명이며 동호회비는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참고로 동호회 회사지원도 있습니다. 회원은 SBS 구성원 모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활동하였고, 그만큼 오랜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있는 동호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봄가을 한두 번씩 연간 총 4회 정도 출정을 다닐 정도로 활동이 활발한 동호회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2019년 10월을 마지막으로 벌써 3년 동안 활동이 잠정 중단되어 올가을부터 재개한다니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왜 남시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나요?

벌써 낚시경력만 40년이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하면 책가방 던져놓고 강이고 연못이고 뛰어들어 붕어 잡고 자랐습니다. 대나무를 잘라서 낚싯대도 직접 제작하여 낚시한 경험도 있고, 투망부터 족대, 민물낚시, 바다낚시 등



낚시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기에 친숙하고 잘할 수 있는 취미였습니다. 또한, 낚시를 처음 접하거나 초보자에게 낚시 노하우와 비법도 전수해주며 도와줄 수도 있고, 많이 잡으면 잡은 고기도 나눌 수 있어서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출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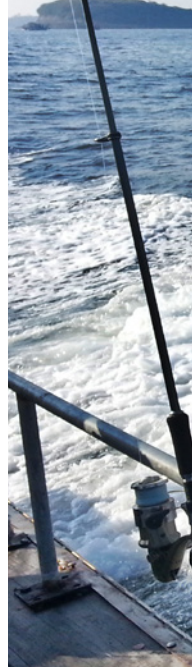
바다낚시의 경우에는 당일치기 일정이기 때문에 주말 새벽에 일찍 출발합니다. 오전 7시 정도면 항구에 도착하여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낚시에 필요한 준비물과 안전장비를 나눠줍니다. 해경이 낚싯배 출항 전에 인원파악과 연락처 등 간단한 신상파악 후 출항을 합니다. 큰 배에는 보통 15~25명 정도 배정되고 7시~8시쯤 출항하여 2시간쯤 항해하여 9시나 10시부터 낚시를 시작해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잡습니

다. 점심은 잡은 물고기로 회를 떠먹기도 하고 라면에 넣어서 먹으며 계속 낚시합니다. 오후 4시쯤에는 낚시를 마치고 항으로 귀항하여 인원파악 후 복귀합니다.

낚시동호회 활동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취미활동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동호회활동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취미로 배낚시를 하려면 보통 8~9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동호회로 배낚시를 하면 활동비가 지원되어 3~4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음은 동호회활동을 통해 타 부서의 직원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낚시동호회는 기술인을 넘어 편성, 제작, 보도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져서 업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낚시 입문자나 초보자도 잘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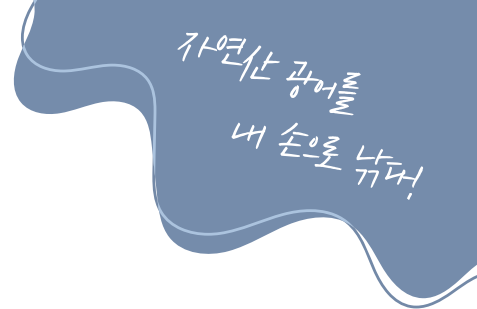
선배 동호회원들이 낚시에 필요한 채비나 밑밥 끼는 것부터 차근차근 친절하게 알려주고 도와줘서 잡는 방법도 금방 배우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낚시 장비가 없는 회원분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낚신탄 선장님이 주낙이나 낚신탄도 빌려주고 동호회원들에게 빌려서 잡기도 합니다. 오히려 낚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처음 낚시하러 온 사람은 신기하게도 꼭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잡으면 재미있어서 또 낚시가 하고 싶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호회에 가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낚시동호회의 영업비밀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일까요?

2014년 서해 전곡항에서 했던 주꾸미 낚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아마 한 사람당 200~300마리씩 잡았던 것

같아요. 바다에 넣었다가 빼기만 해도 2~3마리씩 잡아서 너무나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낚시를 했어요. 조황과 시기를 잘 만나면 이렇게 많이 잡는 날도 있습니다. 2004년 우럭 낚시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도 한 사람당 40~50cm 크기의 자연산 우럭을 20~30마리씩 잡았던 것 같아요. ‘도시어부’처럼 대상어 크기순으로 시상도 했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주의할 점은 없나요?

배낚시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뱃멀미입니다. 뱃멀미가 있으신 분은 필히 먹거나 붙이는 멀미약으로 대비하셔야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뱃멀미가 정말 심하신 분은 배낚시 말고도 민물낚시도 있기에 민물낚시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바다낚시는 당일로 다녀오고 민물낚시는 1박 2일로 다녀오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선호합니다.

비동호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회사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동료들과 친목도 도모하

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동호회활동을 적극 권장합니다. 특히 낚시는 잡생각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바다나 강으로 출정을 나가면 자연 속에서 쉬다 올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회원들의 나이가 40~50대 기술직 남성분들이 많고, 다른 부서도 고루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데려가서 함께 낚시를 즐길 수 있어 20~30대와 여성회원도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가을부터 다시 출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